

7차 SSK 동아시아지역질서 연구회 월례회의

일시: 2016년 6월 4일(토) 10:00-12:00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 세미나실

발표자: 김애경(명지대학교), “중국의 동맹정책과 북한에 대한 적용”

정주연(고려대학교), 박선령(고려대 석사과정),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Producers: Why Rare Earth Smuggling Persists in China”

참석자: 김애경, 정주연, 이용욱, 김지영, 조은정, 박선령, 김재영, 박소영, 장지영, 홍성표, 조수현, 용채영

김애경, “중국의 동맹정책과 북한에 대한 적용”

발표문 참조

* 토론 및 질의응답

이용욱: 동맹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안보, 지정학적 세력균형, 이데올로기, 세 변수가 독립적인 느낌을 주면서 평행(parallel)하게 나옴. 하지만 세 변수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지정학적인 요인이 안보에 영향을 주고, 변수들의 penetrating한 성격이 있을 것이다. 만약 변수들의 조합 또는 변수들의 hierarchy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변수들의 hierarchy를 만들 것인가?

1961년 중국이 북한관리를 위해 동맹 맺었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로 한 것인가? 중국이 미루고 있다가 안보, 지정학적 요인이 1961년에 바뀌면서 해주게 된 것인가?

김애경: 하나가 따로 구분되어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안보, 지정학적 요인, 이데올로기 요인이 섞인다. 이데올로기가 같은 데서 오는 안보위협은 없었음. 어떤 선에서 우선순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함.

조약은 확인은 못해봤지만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1956년 호루시초프 등장으로 소련의 개인송배화가 진행되면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충격을 받고, 3자 간 갈등을 맺기 시작함. 북-중-소 관계가 1958년 이후 변화하는데 영향. 북한의 지도부 내에선 연안파-소련파가 나뉘었다. 연안파, 소련파의 연합이 나타나 김일성이 이들을 소련으로부터 축출하고, 인민해방군을 몰아내고 내부의 연안파도 숙청함. 북한이 당시 잠깐 고립된 것 같았지만 소련, 중국에서는 북한을 누가 더 데리고 가는가의 고민이 있었음. 1961-62년 고민이 있었고 이후 조-중 우호조약을 맺음 이 시기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양보하는 정책을 취해왔고, 약소국들에게만 상당히 양보하면서 내륙 국경조약을 체결했음. 따라서 정황상 상당히 적극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주연: 역사적 디테일이 더 보강되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음.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항미원조’의 이데올로기, 지정학적 요인들이 있지만 간접적 요인보다 직접적 안보위협을 느낀 것 같은 역사적 상황들이 있음. 38선을 미국이 넘어서 대만해협에 위기가 되는 등. 훨씬 직접적인 요인들이 앞의 이데올로기, 지정학적 요인보다 큰 고려가 될 수 있었는데

더 부각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story에서 훨씬 재밌고 차별성있는 논문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인가, 부담인가? 원론적으로 자산인 의미는 알겠지만 엄청난 자산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전형적인 '순망치한'론임. 그것은 완충지대의 이유만으로 북-중 유사동맹,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안보 제공을 하기엔 약하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전략적 자산'이 되는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면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김애경: 약소국에 대해서도 안보요인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 우선순위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함. 전략적 자산 또는(or) 부담인지의 논의는 너무 고루한 이야기임. 현재 중국에게 북한은 자산 그리고(and) 부담이다. 동맹 폐기도 못하고, 다시 달래기도 함. 그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으나, 찾기 쉽지 않다. 중국에선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에 대해서 지도자들, 외교부 대변인들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학자들은 한반도가 불안정했을 때, 중국도 어려웠고 불안정했고, 한반도가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하며 북한이 그 대로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측하기 어렵다.

김재영: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 원인? 논의가 정리가 안 됨. 특히 이데올로기 요인이 재미있게 보았는데, 이데올로기가 상대방과 나와 공유하는가의 외부적 측면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내부 차원도 있다. 이데올로기의 외부적 측면보다 내부를 보았을 때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북한에 대한 시각은 완충지대(buffer zone)도 있고, 중국이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관계에서에서 나오는 것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혁명선도 또는 약소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측면에서 한국전쟁에 개입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이데올로기가 국가정체성의 피상적 측면으로 나오기보다, state identity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012년 중국의 강대국화 담론분석과 함께 보면 중국의 self-identity의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왔다갔다함. 순망치한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저지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자산으로 북한을 볼지, 아니면 강한 제재를 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제재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 이다. 요새 상황은 중국이 예전과 다르게 global power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음. 북중관계가 과거처럼 경색-화해의 반복적 국면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관계인지 생각해볼 수 있음.

김애경: 이데올로기라는 부분은 규정하기 어려움. 당시에 확실했던 것.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데는 더 고민해봐야 하지만 전혀 자기 내적 규정이 맞지 않진 않았다. '동지애' 이런 것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다. 동북지역에서 공산당이 독립투쟁, 국민당과 전투할 때 후방기지로 북한을 제공해주는 것 등은 대화록에 나옴.

이용욱: 중국에게 북한이 적절한 자산일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정치에서 긴장도 적절히 있어야 하고, 중국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북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북한을 적절히 관리해주면서 평판을 얻고 있다. 1월에 중국에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사실은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수업시간에 북한이 잘못했다고 언급했는데, 강의를 들은 북한 학생이 학교에 신고를 해서 교수가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들음. 이런 사례를 보면 외부 학자들은 중국에서

북한을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국 안에서는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부채가 아닐 수도 있다. 신고할 수 있다는 매커니즘, 그런 채널이 있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함.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러 중국학자들이 북한으로 인해 아픈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지영: 누가 정체성을 형성하는가? 계속 중국 안에서 투쟁 중인 듯. 전혀 부채가 아니라고 할 때, 부채론을 누가 만드는가? 이는 중국학자들이 만들기보다 미국에서 북한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면서 부채론이 형성되기도 함. 북한-중국 관계들을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흐르는 networking들에 집중. 동북, 길림 쪽의 조선족 학자들. 북한의 자료들을 쓰면 중국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검열받아야 함. academic society나 institution에서는 계속 북중 끈끈함. 따라서 북한을 부채로 보는 전략론을 중국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학자들과 이러한 사고를 공유하는 중국학자들이 이를 공유하면서 나타나지 않는가?

김애경: 중화주의나, 보편적 국제질서 안에서의 중국의 강대국 행위인가? 이러한 이야기와 연결. 자산, 부담인지..

김지영: 한국전쟁 시기 이데올로기 중요. 문서. 모택동의 한국전쟁 참전, 계속 잦다. 미국이 압록강 넘나 안 넘는가. 이데올로기적 동지였나, 철저히 실용적으로 봤는가. 너희는 동맹이고 끊임없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확신을 주었다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신뢰가 없음.

김애경: 중국학자들은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북한, 중국에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보는 쪽도 있음. 중국-한국의 수교로 인해, 중국이 북한에게 핵 포기하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 북한이 소련과 관계에서 핵 개발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이 중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너희가 우리와 동맹관계를 저버려서 우리가 핵 개발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박선령: 북한이 부담인지, 자산인지에 대한 평가를 중국의 관리 능력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김애경: 현재 중국이 북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북한의 행위가 비합리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한편으로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중국을 설득하고 있다.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북중 관계에서 중국이 다 북한을 관리하려고 하는 동맹이기 보다는 '결박' 수준인데,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미국에게 축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북한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목적이 북한의 모든 행위를 다 관리한다는 것의 동맹 의미가 아니다.

2. 정주연, 박선령,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Producers: Why Rare Earth Smuggling Persists in China"

발표문 참조

* 토론 및 질의응답

조은정 : 이 연구 이후에 어떤 연구를 더 생각하고 계시는 지 궁금.

정주연 : 2016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구조 재편이 밀수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좀 더 국제정치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앙정부와 국유기업과의 관계. 정부가 주요 에너지 산업을, 전략자원에 대한 산업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에 대한 통제는 해야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시장의 효율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하면서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그이 면에 국유기업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산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자 한다.

조은정 : 국가가 어떻게 어떤 actor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수많은 국가들과 어떤 차별적인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회주의 등 특징적인 전략적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 중국만의 특징이 있는지, 다른 국가여도 충분히 밀수가 일어날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중국만의 특수성이 궁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합, 방조, 적극적인 부패들이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완화되고 있는지?

정주연: 비교사례에 대한 국영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전기, telecommunication, resource, 철강 등 이러한 주요산업들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은 특징이라고 할 만 하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국영기업을 엄청난 거대기업으로 키워간다는 것이 두 번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지방이 가지는 autonomy, 중앙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fragmentation이 많이 나타나고, coordination은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는 거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CEO를 당에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가장 큰 차이. 이것이 거대 사기업과는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국유기업과도 큰 차이가 있다. 즉, 국유자산의 이윤을 감독하는 출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당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 당이나 CEO들이 위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이 있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만큼. 희토류 같은 경우에 이제 국영기업이 시작되고 있고, 딱히 지방정부를 잘 통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석유기업만 해도, 정부에 석유가격정책 등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중국의 석유 대외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국유기업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두 번째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서, 반부패운동과 효과. 적어도 희토류 사건에 있어서는, 지방정부간부 인터뷰 해박야하겠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별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수치로만 보서는 2013-15 밀수양이 큰 차이 없고 오히려 증가했을 정도.

박선령: 연구사례 매우 중요한 것 알지만 어렵다. 중국을 일반적 사례의 하나로 보기도 하고,

특수한 사례로 보기도 하는데, 희토류에 대해서 특수한 점이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여서 자원정책에 중앙정부의 강한 영향을 생각했던 반면, 분권화가 일어난다든지, 지방정부의 protectionism, 결정될 때까지 delay가 많다는 거라든지, 등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이 있다.

이용욱 : 밀수의 buyer가 누구인가. 블랙마켓에서 팔린다는 건데, 장물이라고 하나? 상대가 정부는 아닐텐데, 어떤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인가. 국제정치에서 black market , shadow market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궁금하다.

두 번째는 뉴스에서 보면, 희토류 대체방법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다. 희토류 대체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왔는지 궁금. replaceable하다고까지 들은 것 같다. 호주도 매장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중국이 생산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량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

정주연 : 밀수의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품목의 이름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다. 대체기술 개발을 전혀 모르겠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 세계 매장량에 중국이 3-40%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에서 생산단가의 문제가 크니까, 다른 나라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것임.

박선령: 밀수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다. 한 가지는 다른 광물과 섞여있기 때문에 품목변경, 두 번째는 원료가 아니라 상위 상품으로 만들어서 상위 상품이름으로 나간다. 중국은 원료자체가 나가는 것에 예민하다.

대체기술에 대해서는, 일본이 금수조치를 당한 이후에 대체기술개발에 가장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좋지 않다. 워낙 희토류가 독특한 자원. 매장량은 중국이 3-40%이기 한데, 경희토류, 중희토류가 있는데, 가치는 중희토류가 높다. 호주나 미국은 경희토류가 많고, 중국은 중희토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김애경 : 중앙-지방 관계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희토류밀수를 못하게 하니 까 밀수라고 할 텐데, 2010년 일본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당시 선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공식적으로 백기투항 한게 일본이 희토류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또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 중국의 밀수출 양의 80%가 한국과 일본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데 밀수라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일본이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양은 얼마고, 밀수입해오는 양은 얼마고 이게 측정가능한지? 만약 이게 맞는다면, 일본이 바로 백기투항 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함. 107표를 보면, 2010,11년 보면 밀수양이 줄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바로 백기투항할 필요가 있었는가. 통계가 안 잡혀야 밀수라고 하는 건데, 통계가 잡힌 것이 이 정도라면..... 한 예로 보면, 예전에, 중국과 한국의 교역에서 통관에서 자동차가 fabric으로 나갔는데 이게 안 잡혀서 왜 밀수라고 하는지.

박선령: 여기서 밀수의 정의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나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통계에는 잡혔지만, 공식적인 수출 quarter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정부에서 밀수라는 말을 사용했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인터뷰 등을 통해 추산한 내용인데, 2006-2008년 몇 년뒤에 보니 그 해에는 그런 것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온 통계자료. 자료의 정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중국정부가 내는 추정치와 외국에서 나오는 통계가 일정정도 일치해서 자료를 사

용했다. 그리고 앞으로 밀수출 양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 세밀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2010년 일본 금수조치에 관해서는 학자들이나 영미권 언론보도에서 일본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함. 중국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금수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낸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출량이 아예 없었다. 아마 공식적인 수출량이 0으로 떨어진 것도 무기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밀수출에 100% 의존할 수 없는 일본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주연: 밀수라서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선, 주어진 quarter 이상으로 나간 것은 다 밀수로 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추정치로 계산 한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80% 간다고 하는 것도 추정을 가지고 모아서 한 것이다. 정확히 일본의 밀수량과 수출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금수조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타격이 갈 수 있느냐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럼 과연 중국이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충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이러한 자료를 찾아보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조은정 : 북한의 핵의 밀수 양을 보사해 본 기억이 있음. 정확한 통계는 어려웠지만 예상치를 내볼 수 있었다. 최대치를 '생산량-(소비량+해외로 공식적으로 나가는 부분) 최소치를 조사한 것에서 상한선 하한선 부분을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지영 : 지방정부랑 지방소재 희토류 산업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희토류 밀수를 하는 것을 막을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방정부가 막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한테만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추정치가 잡힘에도 불구하고 밀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도 밀수를 막을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 잡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94년 이후에 지방정부의 상납금을 걸었다가 다시 반환하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지방정부가 세수입이 곧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받는 '세수입'이라는 인센티브가, '희토류를 가지고 국제시장을 컨트롤'하는 인센티브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즉,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만큼 전략적인 효과가 덜한 것은 아닌가.

김애경 : 덧붙여서 말하자면, 기존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전략무기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원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유기업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김지영 : 커리어 인센티브가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지방관리들이 지방을 통치하는 동안 경제성장을 얼마나 했는지, 그들에게 커리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지 궁금함. 또 밀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인 돈으로 바로 연결되고 그것이 중앙과 지방의 일반관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에서 희토류 밀수로 얻은 돈들이 중앙에 뇌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공식적 data는 어려울 수 있지만...또 하나는 세계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지방경제 유지를 위해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것인지.

조수현 : 추가질문. 암묵적으로 중앙정부가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질문은, 전략자원으로서 희토류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위쯤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

다. 왜 중국에 이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중요. 중국정부가 밀수통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한 정부가 더 통제한다는 이유로 이게 전략적 자원으로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다른 자원에서도 밀수통제는 있을 것 같다.

박소영 : 지표문제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figure 1에서, 밀수는 데이터가 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 그러니까 생산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2010년에 전략적으로 무기를 하는 것과 다르게, 2011년에 WTO가입 이후에 전략무기화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생산량을 측정 할 것인가 의문. 굳이 제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가격조정 등을 할 때, 통제하지 않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물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생산량과 매장량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희토류가 매우 중요한 것을 사실이지만, 매우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생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데, 예. 일본에서 희토류가 가지는 가격경쟁력에 투자하는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뉴스에서 보기로, 라이너스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대체기술을 개발을 하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다뤄졌으면. 마지막으로, 중국이 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데 만약 산업 구조조정을 해서 국유화한다고 해도, 밀수를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격통제가 더 손쉬워 질 것이고, 국외에서 밀수 수요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 구조조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파악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국유기업을 파편→국유, 처음부터 국유인지 무엇인지 등으로 나누어보면, 이 구조조정이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주연 : 대안적 가설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먼저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게도 묵인방조의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세수이건 부패이건 정치자금이건 간에. 우선 부패나 정치자금화는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anecdote로는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만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 중앙정부 인센티브 관련해서 더 재미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나의 행위자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재정부나 산업부의 이익은 희토류를 국제가격이나 안보적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 외교통상부랑은 매우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들 간의 충돌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 이익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자원에서도 비슷할 것 같다. 이 부분 세수와 관련해서는 재정부의 이익, 산업부 각각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다음 주제로, 중앙정부가 행위가 전환된 원인이 이제 전략자원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왜 과거에는 밀수통제를 못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잡아보려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한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새로운 theme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 내부 수요가 엄청 증가해서 생산량에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갔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 희토류 최대 소비국이 될 것이라라는 전망이 있고, 그러면서 희토류라는 인식자체가 전환됨. 외화벌이 수단으로 생각되다가, 국내에도 수요가 증가되어서 인식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갖고 있다.

그리고 희토류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 스스로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가. 첫째, 대체가능성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불가능하지만, 첨단기술에 필수적일 필요함. 또한, 고품질의 희토류가 거의 중국에만 매장되어 있다. 다른 광물 자원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석유도 마찬가지지만, shale gas 대체기술이 나타나고 나서 더 중요해 진 것처럼 희토류도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 대내적으로는 vulnerability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첨단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

WTO관련 제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cynical하다. WTO때문에 2015년에 수출 쿼터와 관세 제도를 철폐했는데...왜 철폐했는지는 그 이유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수출통제 해봤는데 어차피 효과가 없어서 철폐로 넘어갔다고 보는 것이 주장. 제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비관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국유기업이 과연 얼마나 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영향이 크게 없다.

박선령 : 생산량 매장량에 대해서는 Raw data를 첨부해야할 것 같습니다. 70%가 국내소비. 수출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 리너스. 2010년에 중국이 생산 막고, 해외기업들이 위기를 느껴서 다시 생산 시작은 했지만, 다시 재가동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중국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다.